

당뇨병 환자에서 Treadmill 을 이용한 운동부하검사의 의의

서울을지병원 내과

이태훈 · 이윤호 · 정승태 · 김응진 · 김대하

= ABSTRACT =

Usefulness of Treadmill Exercise Test on Diabetes Mellitus

Tae Hoon Lee, M.D., Yoon Ho Lee, M.D., Seung Tae Chung, M.D.,
Eung Jin Kim, M.D. and Dae Ha Kim,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ul Ji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We studied 193 Diabetics without any symptoms of coronary artery disease and 39 Normal healthy subjects as Control group, using Treadmill exercise test and obtained following results.

1) The positive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Diabetics (19.4% in Normal ECG groups and 25.4% in total Diabetics) than Control groups (5.1%) ($0.01 < P < 0.025$).

2) There was increased positive rate among higher age group ($P < 0.005$), but there was no sexual difference ($0.05 < P < 0.1$).

3) The larger the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 and severity of retinopathy the more positive rate of the Test ($P < 0.005$, $0.01 < P < 0.025$).

4) There was no difference in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at preexercise and stage III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group ($P > 0.05$).

5) There was no difference in HbA1C,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P > 0.05$).

In summary, with exercise test, the positive rate was higher in Diabetics than in Normal control groups and it seemed to be Treadmill exercise test is a useful screening method for evaluation of coronary artery disease as well as for assessment of treatment and follow up care.

서 론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¹⁾³⁾⁴⁾⁵⁾⁹⁾.

그 증가의 이유로는 최근 진단방법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한 비만증의 증가와 일반인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의 향상 등을 들 수 있겠다. 인슐린과 항생제의 발견 이후 당뇨병성 혼수와 감염증

당뇨병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 보고에 의하면 평균 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에 의한 사망율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최근 혈관합병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역학적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2~9)}. 그러나 당뇨병성 혈관합병증 중 가장 치명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진단은 임상증상,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및 관상동맥조영술등에 의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 임상증상이 없고 심전도소견이 정상인 사람의 진단을 위하여는 운동부하검사와 관상동맥조영술이 있는데 저자들은 비침습적 검사로서 운동부하검사인 답차검사를 시행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성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관찰대상 및 방법

대상은 1983년 11월~1985년 1월까지 서울을지병원 내과에 내원한 외래 및 입원한 당뇨병환자 중 흥통등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이 없는 19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여자 127명, 남자 66명이었다. 정상대조군은 39명으로 여자 20명, 남자 19명이었다 (Table 1).

Treadmill(Model ; 1854 S/N ; 0016-004-4951, Quinton, U.S.A.)을 사용하여 Bruce Protocol로 답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시행도중 운동부하검사가 끝날때까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끝난후 전체 유도로 결과를 판정하였다. 운동부하검사 시행 중 매 3분마다 혈압, 맥박, 심전도를 측정 기록하였으며 검사시 운동부하검사 양성의 경우에는 ST절의 하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까지의 시간을 관찰하였다.

양성판정은 ST절의 하강이 1mm 이상, 기간 0.8msec 이상인 경우로 하였고 음성판정은 연령에 따른 맥박수가 기대최고치의 85%에 도달할 때 까지 심전도소견의 이상, 흥통등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하였다. 연령에 따른 맥박수가 기대최고치의 85%에 도달하지 않고 도중에 중단한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찰성적

당뇨병환자 193명 중 운동부하검사 음성은 144명 (74.6%), 양성은 49명 (25.4%)이었으며 대조군은 39명 중 음성은 37명 (94.9%), 양성은 2명 (5.1%)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0.01 < P < 0.0025$) (Table 2).

1) 연령 및 성별

당뇨병환자를 연령별 답차검사 양성율을 보면 39세 이하에서는 없었고, 40~49세 6예 (16%), 50~59세 17예 (25%), 60세 이상에서는 26예 (39%)로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 < 0.005$) (Table 2).

당뇨병환자의 성별 양성율을 보면 여자 66예 중 11예 (16.7%), 남자 127예 중 38예 (29.9%)로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05 < P < 0.1$) (Table 2).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in diabetes mellitus and normal control

Sex	Age	Diabetes Mellitus			Control		
		Negative	Positive	Total	Negative	Positive	Total
Female	- 39	16	0	16	13	0	13
	40 - 49	11	4	15	1	2	3
	50 - 59	35	15	50	3	0	3
	60 -	27	19	46	2	0	1
Total		89	38	127	18	2	20
Male	- 39	6	0	6	8	0	8
	40 - 49	20	2	22	6	0	6
	50 - 59	16	2	18	5	0	5
	60 -	13	7	20	0	0	0
Total		55	11	66	19	0	19
Total		144	49	193	37	2	39

Table 2. Age and sex distribution of exercise test positive rate in diabetes mellitus

Sex	Age	Female(%)	Male(%)	Total(%)
	- 39	0	0	0
	40 - 49	26.6	9.1	16.2
	50 - 59	30.0	11.1	25.0
	60 -	41.3	35.0	39.4
	Total	29.9	16.7	25.4

$P < 0.005$, $0.05 < P < 0.1$.

Table 3. Comparison of positive rate between hypertensive and normotensive group in diabetes mellitus

	Negative(%)	Positive(%)	Total
Hypertensive	7 (63.6)	4 (36.4)	11
Normotensive	137 (75.3)	45 (24.7)	182

($P > 0.1$) Rate of hypertension; 5.7%.

2) 혈 압

고혈압증은 전체 당뇨병환자 193예 중 11예 (5.7%) 이었으며 답차검사에서 양성을 보인것은 고혈압증에서 11예 중 4예 (36.4%)로서 정상혈압환자 182예 중 45예 (24.7%)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1$) (Table 3).

Table 4. Comparison of positive rate between nonspecific and abnormal EKG group in diabetes mellitus

	Negative(%)	Positive(%)	Total
Nonspecific	133 (80.6)	32 (19.4)	165
Abnormal	11 (39.3)	17 (60.7)	28

($P < 0.005$) Rate of abnormal EKG; 14.5%

Table 5. Positive rate according to duration of disease in diabetes mellitus

Duration of disease	Negative(%)	Positive(%)	Total
- 2 years	35 (92.1)	3 (7.9)	38
3 - 5 years	38 (84.4)	7 (15.6)	45
6 - 10 years	46 (65.7)	24 (34.3)	70
- 11 years	25 (62.5)	15 (37.5)	40

($P < 0.005$)

3) 심전도

당뇨병환자 193예에서 정상심전도소견을 보인 경우는 165예로서 양성율은 32예 (19.4%)로서 심전도소견상 이상을 보인 경우는 28예로 이중 17예 (60.7%)에서 양성으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5$) (Table 4).

4) 이병기간

당뇨병환자 193예 중 2년이하인 경우가 38예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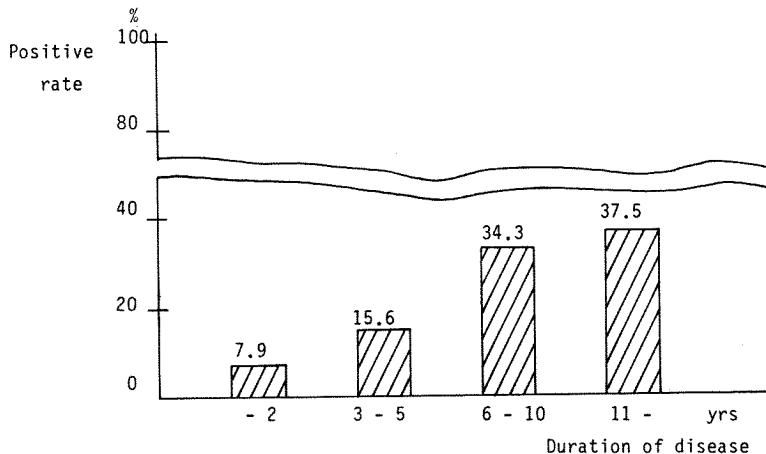


Fig. 1. Positive rate according to duration of disease in diabetes mellitus.

%), 3~5년이 45예 (23.3%), 6~10년이 70예 (36.3%), 11년이상이 40예 (20.7%)이며 이들 중 양성율은 2년 이하에서 3예 (7.9%), 3~5년이 7예 (15.6%), 6~10년이 24예 (34.3%), 11년 이상이 15예 (37.5%)로서 이는 이병기간과 양성율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P < 0.005$) (Table 5) (Fig. 1).

5) 안저검사

전체 당뇨병환자 193예 중 안저검사소견상 105예 (54.5%)에서는 정상이었으며 Initial 14예 (7.3%), Mild 27예 (14.0%), Moderate 41예 (21.2%), Far 6예 (3.1%)였다.

당뇨병성 망막증의 정도에 따른 양성율은 정상에서 19예 (18.1%), Initial 4예 (28.6%), Mild 7예 (25.9%), Moderate 17예 (41.5%), Far 2예 (33.3%)로서 당뇨병성 망막증의 정도와 양성율간에는 Moderate 까지는 점차 증가함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0.01 < P < 0.025$) (Table 6) (Fig. 2).

Table 6. Positive rate according to severity of diabetic retinopathy

Fundus finding	Negative (%)	Positive (%)	Total
Normal	86 (81.9)	19 (18.1)	105
Initial	10 (71.4)	4 (28.6)	14
Mild	20 (74.1)	7 (25.9)	27
Moderate	24 (58.5)	17 (41.5)	41
Far	4 (66.7)	2 (33.3)	6

($0.01 < P < 0.025$)

6) 단차점사

(1) 음성군에서의 정지사유

호흡곤란이 당뇨병환자 144예 중 89예 (61.8%), 대조군 37예 중 27예 (73.0%)로서 가장 많았으며 log fatigue, 흉부불쾌감등의 순서이었다 (Table 7).

(2) 양성에서의 ST 절 하강의 정도 및 Type

당뇨병환자 49예 중 1mm 하강이 35예 (71%), 2mm 하강이 13예 (27%), 3mm 하강이 1예 (2%)이고 대조군에서는 2예 전부 1mm 하강이었다.

Type 별로는 당뇨병환자 49예 중 Upsloping이 7예 (14%), Horizontal 35예 (71%), Downsloping이 7예 (14%)이었다. 대조군에서는 Upsloping 1예, Horizontal 1예이었다 (Table 8).

(3) 단차점사의 총 기간

당뇨병환자에서 음성군은 9.93 ± 2.92 (Mean \pm SD) 분이고 양성군은 6.33 ± 3.09 분이었으며 대조군은 음성군

Table 7. Cause of discontinuation of exercise in negative group

Cause of discontinuation	Diabetes mellitus(%)	Control(%)
Shortness of breath	89 (61.8)	27 (73.0)
Leg fatigue	37 (25.7)	5 (13.5)
Dizziness	10 (6.9)	4 (10.8)
Chest discomfort	4 (2.8)	0 (0)
Cthers	4 (2.8)	1 (2.7)
Total	144 (100)	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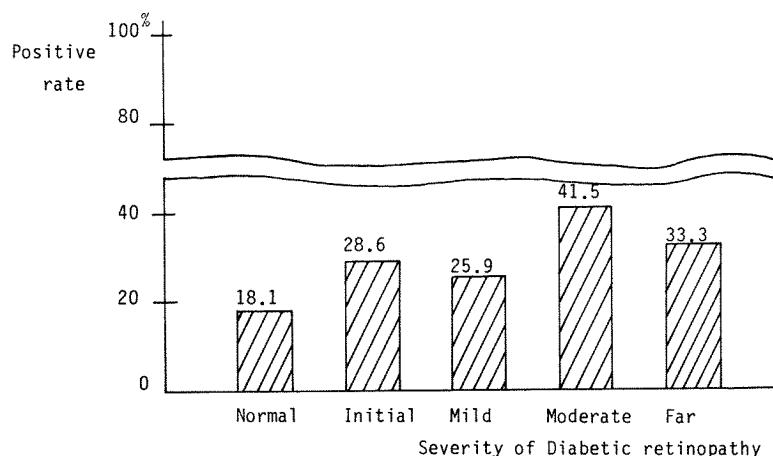


Fig. 2. Positive rate according to severity of diabetic retinopathy.

Table 8. Type and degree of ST depression in positive group

Degree	Type	Diabetes mellitus	Control
1mm	Upsloping	3	1
	Horizontal	26	1
	Downsloping	6	0
2mm	Upsloping	4	0
	Horizontal	8	0
	Downsloping	1	0
3mm	Horizontal	1	0

Table 9. Duration of exercise in diabetes mellitus and control

Duration of exercise	Negative (Mean \pm SD min)	Positive (Mean \pm SDmin)
Diabetes mellitus	9.93 \pm 2.92	6.33 \pm 3.09
Control	11.76 \pm 3.83	9.30 \pm 2.50

Table 10. Recovery time of ST depression in positive group

	Diabetes mellitus (Mean \pm SD min)	Control (min.)
Recovery time	4.96 \pm 4.15	0

Table 11. Pulse rate, blood pressure in resting state and treadmill test stage III in diabetes mellitus

		Negative (Mean \pm SD)	Positive (Mean \pm SD)	
Pulse rate (min.)	Resting state	79.46 \pm 10.89	73.91 \pm 8.62	P > 0.05
	Stage III	154.58 \pm 18.06	150.17 \pm 25.59	
Systolic BP (mmHg)	Resting state	116.54 \pm 17.22	118.48 \pm 17.53	P > 0.05
	Stage III	143.78 \pm 20.52	145.22 \pm 16.65	
Diastolic BP (mmHg)	Resting state	73.27 \pm 12.23	72.17 \pm 11.02	P > 0.05
	Stage III	90.69 \pm 13.37	90.43 \pm 12.33	

Table 12. Comparison of HbA1C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group in diabetes mellitus

	Negative (Mean \pm SD)	Positive (Mean \pm SD)	
HbA1C	9.22 \pm 2.60%	9.49 \pm 2.88%	P > 0.05
Triglyceride	166.06 \pm 106.99mg/dl	179.53 \pm 101.26mg/dl	P > 0.05
Total cholesterol	195.22 \pm 72.30mg/dl	204.86 \pm 50.62mg/dl	P > 0.05

Stage III에서는 음성군이 90.69 ± 13.37 mmHg, 양성군이 90.43 ± 12.33 mmHg로 각각 24%, 25%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두군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Table 11).

(6) 혈액검사

HbA₁C,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당뇨병환자의 음성군과 양성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Table 12).

고 안

당뇨병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몇몇 역학적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¹⁾³⁾⁴⁾⁵⁾⁹⁾.

그에 따라서 합병증도 점차 증가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 이는 최근 진단방법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한 비만증의 증가와 일반인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의 향상 등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다.

1921년 인슐린의 발견 이후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병성 혼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⁷⁾ 항생제의 발견 이후 감염증도 많이 감소하였다¹⁰⁾. 그것에 반하여 Joslin Clinic에 의하면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은 점차 증가하여 간다고 하였다¹⁰⁾.

국내에서도 고혈압증, 관상동맥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등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에 대한 많은 역학적 조사 보고가 있었다 (Table 13)^{2)~9)}. 그러나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의 하나인 관상동맥질환에 관한 연구보고는 별로 없다.

Table 13. Hypertension, coronary artery disease and retinopathy in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	C.A.D. (%)	Retinopathy (%)
Kim ²⁾	37.9	2.2	34.4
Yoon ³⁾	23.9	4.3	21.3
Son ⁴⁾	22.67	—	12.45
Han ⁵⁾	29.6	4.4	9.9
Yoon ⁶⁾	19.5	—	17.7
Kim ⁷⁾	25.3	2.7	6.2
Kee ⁸⁾	11.9	—	10.8
Kim ⁹⁾	25.6	5.0	14.5

* Coronary artery disease.

관상동맥질환은 관상동맥 혈류의 절대적 감소나 심장의 필요량 증가에 따라 관상동맥 혈류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대부분 대관상동맥의 즉상경화성 폐쇄에 기인한다고 한다¹¹⁾.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증, 껀연, 고지질혈증등과 함께 당뇨병은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고 있다. 김등¹²⁾, 고등¹³⁾은 당뇨병환자가 정상대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였다. 당뇨병에서는 정상인데 비해 관상동맥죽상경화증이 많고¹⁴⁾, 관상동맥조영술 한것을 보면 당뇨병에서 3혈관질환의 발생빈도가 1혈관질환의 발생빈도보다 낮다고 하였다¹⁵⁾.

Schlesinger 등¹⁶⁾은 정상인에서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은 혈관의 근위부에 많으며 Dash 등¹⁷⁾은 당뇨병환자에서 원위부의 관상동맥질환의 빈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Anthony 등¹⁸⁾은 정상인에서 보다 당뇨병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더 많으나 정상인보다 더 광범위하거나 수술불능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당뇨병환자 193예 중 담자검사 양성이 49예 (25.4%)로서 Stearns 등¹⁹⁾의 당뇨병 50예 중에서 협심증이 14예 (28%)인 것과 비슷하였고 비당뇨병 400예 중 협심증이 59예 (15%)보다는 높아서 역시 당뇨병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당뇨병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흉통의 심근경색증이 많은것은 Faerman 등²⁰⁾의 조직학적 조사를 보면 당뇨병에서의 무흉통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구심성 신경에 손상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무흉통성 심근경색증은 고령에 많으며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므로 사망율이 흉통이 있는 경우가 18%인데 반하여 무흉통인 경우는 50%가 된다고 하며²¹⁾, 전에 당뇨병, 고혈압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많다고 하였다²²⁾.

Jean 등²³⁾은 당뇨병에서 무흉통성 심근경색증이 24.1%이며 Robert 등²⁴⁾은 정상인에서 6%, 당뇨병에서 42%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Lindberg 등²⁵⁾이 보고한 정상인에서의 15%보다 높음을 알수 있다.

Allen 등²⁶⁾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환자를 부검한 결과 무흉통성이 26%라고 하였으나 이 등²⁷⁾의 무흉통성인 경우가 24.3%인 것과 비슷하였으나 선행 질환 중 당뇨병이 13.5%로서 고혈압증, 협심증에 이어서 3번 째였다. 관상동맥질환은 임상적으로 무증상, 안정성 협심증, 불안정성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등으로 나타나며 이를 중 무증상 상태인 경우는 다른 이유로 사망한 후 부검하거나,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후에야 발견할수 있는데 관상동맥조영술의 경우는 침습성 방법이므로 선별검사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러므로 당뇨병성 관상동맥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 비침습성 방법인 담차검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경비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여기서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면 가양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²⁸⁾.

Submaximal exercise에서 심박수 반응은 대사 요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대 도달심박수 기대치의 85%이상되는 피검자로서 ST 절의 하강이 없으면 음성으로 판정하였으며 이 최대 도달심박수의 기대치는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²⁹⁾. 대부분 조사에 의하면 ST 절의 하강은 민감도가 60~70%이고 특이도는 90%이며 다헐관질환에서는 민감도가 가장 크고 단일혈관질환에서는 가장 작다³⁰⁾. 그리고 심전도 유도 중에는 V₅ 유도가 가장 예민하며 75~90%의 민감도가 있다³⁰⁾.

접합부의 하강이 1.5mm 이하 일때는 다헐관질환은 드물고 1.5mm 이상에서는 혼하며 2mm 이상 하강일때는 ST 절이 Upsloping 양상일때의 관상동맥질환의 발생빈도와 같다³¹⁾. 담차검사의 중단하는 절대적 사유는 수축기 혈압의 감소, 협심성 흉통, 중추성 신경계의 증상, 창백, 청색증, 피부가 차가워지거나, 심한 부정맥 환자의 거부, ST 절의 변화등이 있으며 상대적 사유로는 심한 접합부의 하강, 흉통, 피로, 호흡곤란, 천명, 다리경련, 간헐성 파행증, 혈압 280/115 이상, 덜 심한 부정맥 (심실상성 빈맥) 등이 있다³⁰⁾.

Frederick 등³²⁾에 의하면 Stage I~II에서 양성이면 97%이상이 현저한 관상동맥질환이며 이들 중 60%이상이 3혈관질환이고 25%에서 좌측주관상동맥의 현저한 협착 (50%이상) 이 있다. Stage IV이상이면 음성이거나 애매한 ST 절의 하강은 3혈관질환의 유병율이 15%이하이고 좌측주관상동맥질환의 유병율은 1%이하라고 하였다.

Gilles 등³³⁾은 운동기간이 stage I에서 양성이면 5년 생존율이 52±13%, Stage II에서는 73±7%, Stage III에서는 86%, Stage IV에서는 100%라고 하였다. 이것은 운동부하검사 기간이 길수록 관상동맥질환의 유병율이 낮아지고 5년 생존율이 증가하여 예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다.

가양성이 나올수 있는 것으로는 압력의 과부하, 저칼륨혈증, 과호흡증, 좌작불록, WPW증후군, Digitalis Diuretics, Tricyclic antidepressant, Phenothiazines, Lithium 등 같은 약제나 승모판탈출증후군, 혈관조절무력증, 선천성 심장질환등이 있으며 가음성의 경우는 나이트레이트, 칼슘진통제, β 차단제 등이 있다³⁴⁾.

저자들의 관찰결과를 보면 연령별 담차검사 양성율이 39세이하에서는 없었으며 40~49세에서는 16%, 50

~59세에서는 25%, 60세에서는 39%로서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송등³⁵⁾이 전체 내과환자에서 조사한 것과 일치하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자가 29.9%, 남자가 16.7%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것도 역시 송등³⁵⁾의 보고와 비슷하였다. 이병기간별로 보면 양성을 이 2년이하에서 7.9%, 3~5년 15.6%, 6~10년 34.3 11년이상이 37.5%로서 이병기간이 길수록 양성을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김등⁷⁾의 보고에 의하면 합병증의 빈도가 3년이내 52.4%, 3~10년 77.4%, 10년 이상이 99.5%로서 이병기간이 길수록 합병증의 빈도가 점차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윤등⁶⁾의 보고에서도 당뇨병성 망막증이 5년이하에서 12.9%, 5~10년에서 36.4%, 10년이상에서 60.5를 보여 이병기간이 길수록 점차 당뇨병성 망막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안저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 안저소견이 54.4%, 당뇨병성 망막증이 45.6%로서 국내의 다른 보고^{2~9)} (Table 13)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양성을은 Normal 18.1%, Initial 28.6%, Mild 25.9%, Moderate 41.5%, Far 33.3%로서 당뇨병성 망막증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양성을이 점차 높아짐을 알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전도를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가 14.5%이며 이중 관상동맥부전이 39%, 좌심실비대증은 25%, 심근경색증은 18%, 각블록 18% 순이며 한동⁵⁾은 좌심실비대증 64.6%, 관상동맥부전 11.5%로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저자들의 전체 당뇨병환자 중 심근경색증은 2.6%인데 비해 한동⁵⁾은 1.88로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상심전도 소견을 보인 당뇨병환자 165 예 중 음성 80.6%, 양성 19.4%이며 심전도 소견에 이상을 보인 당뇨병환자 28예 중 음성 39.3%, 양성 60.7%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조군은 전원이 심전도 소견상 이상이 없었으며 이중 음성 95%, 양성 5%로서 당뇨병환자 중 정상심전도 소견을 보인 환자의 양성을 19.4%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Vannoy 등³⁶⁾이 보고한 무증상 정상군에서 보인 2~13%의 양성을 통해 저자들의 당뇨병환자 중 정상심전도 소견인 환자에서의 양성을이 높았으며 Shirley 등³⁷⁾이 보고한 17예의 무증상인 여자 당뇨병환자에 대한 양성을이 47%, 대조군이 22.2%로서 저자들의 보고보다 높은 양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당뇨병환자와 대조군의 수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Thomas 등³⁸⁾의 보고에

의하면 95예의 건강여자군에서의 양성율이 6%인 것은 저자들의 보고와 비슷하였으며 저자들의 여자 당뇨병 환자 127예 중 29.9%의 양성율을 보이므로 역시 당뇨병에서 양성율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Tancredi 등³⁹⁾이 보고한 16예의 심전도 소견이 정상인 무증상의 남자 당뇨병 환자에서 보이는 양성율 12.5%와 대조군의 양성율이 8.3%를 보인 것은 저자들의 심전도 소견상 정상인 당뇨병 환자에서 보인 양성율 19.4%보다 다소 낮았다.

결 론

저자들은 1983년 11월~1985년 1월까지 서울을지병원 내과에 내원한 외래 및 입원 환자 중 흥통 등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 193명과 정상 대조군 39명에서 단차검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당뇨병 환자 193예 중 정상 심전도 소견을 보인 환자는 165예 (86.5%)로서 이들의 양성율은 19.4%이며 대조군 39예 중 양성율이 5.1%로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25$).

2) 연령별로 보면 당뇨병 환자에서의 양성율은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5$).

성별로 보면 남자의 양성율이 29.9%, 여자의 양성율이 16.7%로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05 < P < 0.1$).

3) 당뇨병의 이병기간이 길수록 양성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안저검사상 당뇨병성 망막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양성율이 높았으며 이들은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P < 0.005, 0.01 < P < 0.025$).

4) 운동부하 전과 운동부하 후 Stage III에서의 맥박과 혈압은 음성군과 양성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5) HbA₁C, 총 콜레스테롤, 총 성지방은 음성군과 양성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정상 대조군에 비교하여 운동부하 검사 결과 양성율이 높았으며 단차검사는 당뇨병 환자의 관상동맥 질환 유무에 대한 선별검사와 치료 및 예후판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김응진 · 이홍규 · 최수봉 · 김영건 : 한국인 당뇨병

의 역학적 연구, 당뇨병 5: 25, 1981

- 2) 김삼용 · 장연복 · 이홍규 · 김영건 · 김응진 · 최수봉 :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연구, 당뇨병 5: 1, 1981
- 3) 윤영길 : 당뇨병의 임상적 관찰, 경북의대 잡지 13: 397, 1972
- 4) 손성국 · 한덕호 · 허갑범 · 이상용 : 한국에 있어서서의 당뇨병의 통계적 관찰, 당뇨병 3: 43, 1979
- 5) 한덕호 · 이상인 · 허갑범 · 이상용 : 당뇨병의 임상적 관찰, 당뇨병 2: 33, 1978
- 6) 윤창남 · 서용렬 · 백정민 · 이태연 : 당뇨병의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 잡지 19: 689, 1976
- 7) 김영건 · 김응진 · 신순현 :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연구, 대한당뇨병학회지 3: 37, 1975
- 8) 기춘석 · 은광표 · 이광현 · 김동준 · 민병석 : 한국인 당뇨병 378예에 대한 역학적 고찰, 대한내과학회 잡지 13: 25, 1970
- 9) 김응진 · 김명환 · 한성수 · 장청순 · 전동수 · 김상인 · 채범석 : 한국인 당뇨병의 임상 및 실험적 연구, 대한내과학회 잡지 5: 23, 1962
- 10) Marks HH: *Longevity and Mortality of Diabetes*. Am J Public Health 55: 416, 1965
- 11) Braunwald E, Cohn PF: *Ischemic Heart Disease*. In: Petersdorf RG, Adams RD, Braunwald E, Isselbacher KJ, Martin JB, Wilson JD, eds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p 1423,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3
- 12) 김연호 · 손성표 · 박준규 · 신영기 · 강종식 : 성인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HbA₁C, Cholesterol, Triglyceride에 관한 고찰, 대한내과학회 잡지 27: 917, 1984
- 13) 고대진 · 지무영 · 이상용 · 신순현 · 박실무 · 이기항 · 유언호 · 김종숙 : 당뇨병 환자에서의 혈청지질에 관한 연구, 대한내과학회 잡지 21: 323, 1978
- 14) Root HF, Bland EF, Gordon WH, White PD: *Coronary Atherosclerosis in Diabetes Mellitus*, JAMA 213: 27, 1939
- 15) Hamby RI, Sherman L, Mehta J, Aintabliah A: *Reappraisal of the Role of the Diabetic State in Coronary Artery Disease*, Chest 70: 251, 1976
- 16) Schlesinger MJ, Zoll PM: *Incidence and Localization of Coronary Artery Occlusions*, Arch Pathol. 32: 178, 1941
- 17) Dash H, Johnson RA, Dinsmore RE, Francis CK, Harthorne JW: *Cardiomyopathic syndrome due to Coronary Artery Disease*, Br. Heart J

39 : 740, 1977

- 18) Dertimer AC, Shenoy PN, Shiroff RA, Leaman DM, Babb JD, Liedtke AJ, Zellis R: *Diffuse Coronary Artery Disease in Diabetic Patients*, *Circulation* 57 : 133, 1978
- 19) Stearns S, Schlesinger MJ, Rudy A: *Incidence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Coronary Artery Disease in Diabetes Mellitus*, *Arch Int Med* 80 : 463, 1947
- 20) Faerman I, Faccio E, Milei J, Nunez R, Jadzinsky M, Fox D, Rapaport M: *Autonomic Neuropathy and Painless Myocardial Infarction in Diabetic Patients*, *Diabetes* 26 : 1147, 1977
- 21) Uretsky BF, Farguhar DS, Berezin AF, Hood WB Jr: *Symptomatic Myocardial Infarction without Chest Pain*, *Am J Cardiol* 40 : 498, 1977
- 22) Margolis JR, Kannel WB, Feinleib M, Dawber TR, McNamara PM: *Clinical Features of Unrecognized Myocardial Infarction-Silent and Symptomatic*, *Am J Cardiol* 32 : 1, 1973
- 23) Partamian JO, Bradley R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258 Cases of Diabetes*, *N Engl J Med* 273 : 455, 1965
- 24) Bradley RF, Partamian JO: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Diabetic Patients*, *Med Clin N Am* 49 : 1093, 1965
- 25) Lindberg HA, Berkson DM, Stamler J, Pindexter A: *Totally Asymptomatic Myocardial Infarction: An Estimate of Its Incidence in the Living Population*, *Arch Int Med* 5 : 628, 1960
- 26) Kennedy JA: *The Incid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without Pain in 200 Autopsied Cases*, *Am Heart J* 14 : 703, 1937
- 27) 이동훈 · 윤완중 · 박영학 · 이창원 · 이경원: 급성심근경색증의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지* 27 : 1082, 1984
- 28) Cohn PF: *Severe Asymptomatic Coronary Artery Disease*, *Am J Med* 62 : 565, 1977
- 29) Clark PI: *Physiology Signs and Symptoms: Contribu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xercise test*, *Cardiology Clinics* 2 : 355, 1984
- 30) Froelicher VF Jr: *Techniques of Exercise Testing In: Louge RB, Rackley CE, Schlant RC, Sonnenblick EH, Wallace AG, Wenger NK, eds J Willis Hurst The Heart*, p 1726,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2
- 31) Kurita A, Chaitman BR, Bourassa MG: *Significance of Exercise-Induced Junctional S-T Depression in Evaluation of Coronary Artery Disease*, *Am J Cardiol* 40 : 492, 1977
- 32) McNeer JF, Margolis JR, Lee KL, Kisslo JA, Peter RH, Kong Y, Behar VS, Wallace AG, McCants CB, Rosati RA: *The Role of the Exercise Test in the Evaluation of Patients for Ischemic Heart Disease*, *Circulation* 57:64, 1978
- 33) Dagenais GR, Rouleau JR, Christen A, Fabia J: *Survival of Patients with a Strongly Positive Exercise Electrocardiogram*, *Circulation* 65 : 452, 1982
- 34) Cintron G: *Modifiers of Exercise-Induced S-T Segment Changes*, *Cardiology Clinics* 2 : 349, 1984
- 35) 송희승 · 이정하 · 노영무 · 박신권 · 박희문 · 이만호 · 서순규 · 이종현 · 김관화 · 육준재 · 서홍규: 한국 성인 심장병의 역학적 연구, *대한내과학회지* 15 : 1, 1972
- 36) Faris JV: *Exercise Testing: Screening and Reproducibility in Asymptomatic Subject*, *Cardiology Clinics* 2 : 415, 1984
- 37) Rubler S: *Asymptomatic Diabetic Females NY State J Med* 81 (8) : 1185, 1981
- 38) Sheffield LT, Maloof JA, Sawyer JA, Roitman D: *Maximal Heart Rate and Treadmill Performance of Healthy Woman in Relation to Age*, *Circulation* 57 : 79, 1978
- 39) Abenavoli T, Rubler S, Fisher VJ, Axelrod HI, Zuckerman KP: *Exercise Testing with Myocardial Scintigraphy in Asymptomatic Diabetic Males*, *Circulation* 63 : 54, 1981